



CJ나눔재단, 문화다양성 확대 '문화부 장관' 표창

CJ나눔재단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단체 부문에서 민간 재단이 해당 표창을 받은 것은 CJ나눔재단이 처음이다. 나눔 플랫폼 'CJ도너스캠프' 통해 문화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창작 역량 육성에 힘써왔다.

/CJ나눔재단



동아오츠카, '스포츠 안전 분야' 공로 인정

동아오츠카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스포츠 현장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2025년 한 해 동안 스포츠 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공익광고 송출 ▲폭염 대응 매뉴얼 배포 등 실질적인 예방 중심 활동을 펼쳐왔다.

/동아오츠카



현대건설, 3개 창업지원기관과 안전문화 확산 MOU

현대건설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창업지원기관과 건설 안전 혁신 기업 공동 발굴 및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임병천 현대건설 안전기획실장 등 각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건설



하나은행, 인하대병원과 유산 기부 업무협약

하나은행이 인하대병원과 유산 기부 문화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인하대병원 임직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 제고 ▲기부자 맞춤형 금융 상담 ▲신탁을 활용한 기부 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KT&G 상상마당 부산

로컬 아티스트 '봄눈' 전시

KT&G가 로컬 아티스트 작품인 '봄눈' 전시를 오는 23일부터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진행한다. 해당 기획 전시는 지역 유수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KT&G 상상마당 부산의 문화공연 프로그램으로 김선우·박현지 작가가 참여했다. 김선우 작가는 감성적 표현을 기반으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고, 박현지 작가는 공간과 체험 요소를 결합한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시아나항공, T2서 날아올라… 승객 혼선방지 총력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탑승수속카운터 동편 G-J열
인천공항 진입로에 안내문 부착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운항을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04시 55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한 OZ177편이 아시아나항공 운항 아래 처음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도착했다. 2터미널을 통해 처음 출발한 항공편은 07시 06분에 출발한 오사카행 OZ112편이다. 이로써 향후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 통합항공사 출범을 향한 가장 큰 준비를 마쳤다.

제2터미널에서의 탑승수속은 3층 동편에 위치한 G-J열 카운터에서 진행한다. G열은 백드롭(BAG-DRO



아시아나항공이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양사 직원들이 터미널 이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P) 전용 카운터, H열은 백드롭 카운터와 일반석 카운터가 병행 운영되며, 비즈니스클래스승객과 우수회원은 J열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라운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 4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님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천공항 진입로에 전광판 및 가로등에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내/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노력은 물론, 터미널을 잘못 도착한 손님들을 위한 대책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민솔 인턴기자 mnskim@metroseoul.co.kr

제1터미널로 잘못 도착한 승객을 위해 기존 탑승수속 카운터 C구역에 안내 데스크를 별도 운영하고, 터미널 안내 어깨띠를 두른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C구역 카운터와 3층 8번 게이트에서 안내를 실시한다. 안내 데스크는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오도착 손님 중 출발시간이 임박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터미널 간 긴급 수송 차량도 운영, 손님들의 원활한 여행을 돋는다.

이재학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출범할 통합항공사가 번영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대차 아이오닉9

세계 여성 올해의 차 '대형 SUV' 선정

WWCOTY서 2년 연속 수상
최대 수준 실내공간 등 꼽아

현대차는 전기차 아이오닉9이 '2026 세계 여성 올해의 차(WWCOTY)'에서 최고의 대형 스포츠유트리티 차(SUV)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WWCOTY는 54개국 84명의 여성 자동차 기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총 6개 부문에서 최고의 차량을 선정한다. 아이오닉9은 등급 최대 수준의 실내 공간, 500km가 넘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등을 높게 평가받아 최고의 대형 SUV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산타페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의 대형 SUV 부문을 수상하며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마르타 가르시아 심사위원장은 "아이오닉9은 첨단 기술과 실용성이 어 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명확히



현대차 아이오닉 9.

보여주는 모델"이라며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 성능과 뛰어난 실내 공간, 높은 품질을 갖춰 대형 전기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9은 전동화 전환에 대한 현대차의 확고한 의지와 기술력을 담은 모델"이라며 "글로벌 고객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가스안전공사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위조명함으로 물품 대금 탈취 시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임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시도가 포착됐으며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고 대금을 편취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시기별들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접근해 납품을 요청하면서 위조된 명함과 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돼 범행 수법이 한층 정교해졌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모든 물품 구매 및 용역 계

약이 '나라장터'와 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이른바 이면 거래를 알선하거나, 특정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공사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29개 전지사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아동복지시설에 '안심카 23대' 기증

한수원, 누적 687대 지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추가 지원했다.

한수원은 지난 13일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열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에 통학 차량 23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수원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한 차량은 누적 687대에 이른다.

'안심카 플러스'는 소외계층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돌봄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단순한 차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관리와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 13일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차량 지원 사업인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수원

2014년부터 13년째 도서 나눔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 13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렉서스 복합문화 공간 커넥트투에서 '2025 도서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인 약 1만2700권의 도서를 비영리 독서진흥단체 '팽스기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서 기부 캠페인은 2014년부터 13년째 이어온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대표적인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참여해 기부한 도서를 도움이 필요한 곳

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캠페인에는 렉서스 복합문화 공간 커넥트투 방문객을 비롯해 전국 렉서스·토요타 공식 딜러,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도서는 팽스기브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지역 작은 도서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독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해 아동·청소년들의 학습과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전보 △부동산 시장과장 백경원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통계정책과장 송준행 △고용통계과장 김락현

부동

▲조정자 씨 별세. 이병태(창원서부경찰서장) 씨 모친상 = 13일, 경남 창원시 신세계장례식장 VIP실, 발인 15일 오전 8시, 장지 경남 함안군 선영. (055)715-5444